

초등학교 '촌지 관행' 여전 학부모 "학기 초는 괴로워"

부작용 심각... 권익위 실태조사 나서

광주 A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이모(37)씨는 최근 촌지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했다.

학기 초를 맞아 학급 반장을 맡은 이씨의 딸은 고무줄을 활용한 만들기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꾸짖음을 들었다.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 것은 반 친구에게 나눠줬다는 게 이유였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것은 오히려 칭찬 받은 행동이었지만, 어제 된 일인지 담임교사의 꾸짖음은 계속됐다. 이씨는 고민 끝에 담임교사를 찾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 다음날 이씨의 딸은 담임교사로부터 '반에서 가장 예쁜 학생'이라

는 칭찬을 들었다.

이씨는 "상품권 한 장에 담임의 태도가 바뀌더라"면서 "아이의 학원비를 줄여주더라도 촌지만큼은 계속 상납해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정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기 초 반장 등 간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촌지 관행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따르던 봉선, 진원, 금호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일부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행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촌지 수수 교사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신고 등이 없는 한 적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늬만 행동 강령'이라는 지적이다.

촌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촌지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올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반장을 맡았지만, 워낙 바빠 학교를 찾아가지 못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담임에게 꾸짖음을 듣고 오더라"면서 "담임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런 일이 사라졌다. 촌지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표면적으로는 촌지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여전하다. 김치 등 반찬을 상납하는 학부모도 있다"면서 "촌지

를 주고 나면 담임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떤 학부모가 이를(촌지)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느냐. 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안 줄 수가 없게 현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촌지를 건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연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양권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는 부패패쇄 기능을 총동원해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방지 대책은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 작해야 하며, 교육이 바로 그 분야"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광주에서" 동구민 걷기 대회 '2015 히계유니버시티' 아드 유치 기원 동구민 걷기 대회'가 26일 광주시 동구 운동동 동적골 산책로에서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여자들은 '2015 희망리본 달기'와 유치를 염원하는 풍선을 날리며 하계 U대회 유치를 기원했다.



조합장 선거 상대 후보 비방 해남경찰, 20대 검거

해남경찰은 26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박모(2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검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K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모씨의 아들인 박씨는 지난 9일 해남우체국에서 상대 후보인 오모(47)씨를 비방하는 200통의 유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박희경기자 dia@

대통령 질타·잇단 비리·고강도 감찰... 움츠린 경찰

최근 대통령의 '경찰가자 해이' 지적과 현직 경찰관의 잇단 비리 등으로 충격을 치른 경찰이 감찰팀 직원 수를 늘리는 등 비리·비행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 경찰사마다 고강도 감찰이 진행되면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2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화라 경찰청장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각종 비리 근절 방안 및 감찰활동 강화, 자정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감찰 직원 3명을 포함한 각 경찰서원 수를 늘리는 등 비리·비행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 경찰사마다 고강도 감찰이 진행되면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남경찰청도 직위공모제를 통해 직원 2명을 추가 선발, 6명으로 구성된 감찰팀을 꾸린 뒤 동부·중부·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들은 민원인의

로 위장, 각 경찰서 직원의 전화 응대태도, 지구대 순찰, 형사·교통과 직원 등의 야간 근무를 점검 중이다.

또 각 경찰서는 연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비리근절 대책문제를 놓고 내부토론을 벌이는 등 분위기 쇄신을 도모 중이다. 고강도 감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흐트러진 분위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소나기 감찰로 도리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대규모 인사 등이 이뤄진 뒤엔 항상 일시적으로 감찰이 강화되곤 했는데, 이번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른 것 같다"며 "최근 잇따라 불거진 비리사건 등을 감안,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집중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상당수 직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진도군수 3천만원 수수 의혹도 조사

광주지검

검찰이 직원 인사와 관공급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뒤통을 받은 혐의로 박연수 진도군수의 직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남 박 군수의 관사와 군청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군내면에 세워진 국내 최대 규모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 임회면에 조성된 '아리랑 마을'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박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 로비를 받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은 사업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유착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

찰은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사업이 18억원이 들어갈 만큼 대규모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박 군수가 전시물 설치공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군수가 인사청탁 대가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 박 군수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군수는 진도 흥주 체육관을 위해 영국에 체육용이며,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진도 이순신 장군 동상은 명량해전 전승지로 기록된 울돌목 주변에 지난 10월 세워졌으며, 아리랑 마을은 대형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휴양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부킹 여성 폭행 지검 출처 슬값 계산

부킹으로 만난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슬값을 계산한 뒤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서로.

26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26)씨는 지난 25일 새벽 5시50분경 광주 서구 차평동 모 소주방에서 부킹으로 만난 조모(여·29)씨의 머리를 빈방으로 내리치는 등 잔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35만원 상당의 손거방을 빼앗아 달아나갔다.

김씨는 소주방에서 신용카드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를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슬값을 계산한 친구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직원 채용·인사 청탁 금품수수

노인인력개발원 前 원장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모(47) 전 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원장은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당시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인 김모(60·구속)씨를 이듬해 개원한 노인인력개발원 호

남지역 사업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내정하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노인요양시설 사업 허가와 보조금 지원 등의 대가로 일부 법인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실직 50·60대 자살 잇따라

26일 오전 9시20분께 화순군 영남역에서 1km 떨어진 철도에서 손모(62)씨가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손씨는 최근 목수 일을 그만둔 뒤 광주 모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자 힘들어 했다. 경찰은 손씨가 숨지기 직전 딸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죽으면 화장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손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2시경 광주 서부 K아파트에 사는 정모(53)씨가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딸(2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모 기업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해온 정씨는 4개월여 전 구조조정을 당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사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면적	소유권	비고
2008타경 47391	광주 A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이모(37)씨	65,000,000	매매	
2008타경 49492	155㎡ 304.5㎡ 303㎡ 16㎡	190,000,000	매매	
2008타경 51081	101㎡ 70㎡ 70㎡ 30㎡ 20㎡	25,000,000	매매	
2008타경 51410	101㎡ 70㎡ 70㎡ 30㎡ 20㎡	80,000,000	매매	
2008타경 47376	155㎡ 304.5㎡ 303㎡ 16㎡	25,554,900	매매	
2008타경 49492	155㎡ 304.5㎡ 303㎡ 16㎡	49,559,900	매매	
2008타경 50774	101㎡ 70㎡ 70㎡ 30㎡ 20㎡	31,000,000	매매	
2008타경 47360	155㎡ 304.5㎡ 303㎡ 16㎡	4,736,800	매매	
2008타경 45646	155㎡ 304.5㎡ 303㎡ 16㎡	181,700,000	매매	
2008타경 44700	155㎡ 304.5㎡ 303㎡ 16㎡	11,326,000	매매	

사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면적	소유권	비고
2008타경 44700	155㎡ 304.5㎡ 303㎡ 16㎡	11,400,000	매매	
2008타경 47376	155㎡ 304.5㎡ 303㎡ 16㎡	44,014,000	매매	
2008타경 47946	155㎡ 304.5㎡ 303㎡ 16㎡	22,590,000	매매	
2008타경 49492	155㎡ 304.5㎡ 303㎡ 16㎡	7,007,000	매매	
2008타경 49492	155㎡ 304.5㎡ 303㎡ 16㎡	7,007,000	매매	
2008타경 50657	155㎡ 304.5㎡ 303㎡ 16㎡	18,516,000	매매	
2008타경 50810	155㎡ 304.5㎡ 303㎡ 16㎡	68,165,800	매매	
2008타경 51524	155㎡ 304.5㎡ 303㎡ 16㎡	32,885,000	매매	
2008타경 47380	155㎡ 304.5㎡ 303㎡ 16㎡	11,326,000	매매	

사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면적	소유권	비고
2008타경 43046	155㎡ 304.5㎡ 303㎡ 16㎡	181,548,500	매매	
2008타경 45764	155㎡ 304.5㎡ 303㎡ 16㎡	70,000,000	매매	
2008타경 48492	155㎡ 304.5㎡ 303㎡ 16㎡	80,000,000	매매	
2008타경 48492	155㎡ 304.5㎡ 303㎡ 16㎡	180,000,000	매매	
2008타경 51254	155㎡ 304.5㎡ 303㎡ 16㎡	484,000,000	매매	